

포스트모던 그림책에서의 역설과 아이러니

-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중심으로*

나 선 희
(성균관대학교)

I. 서론

그림책이 주류문학과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린 아동과 성인이라는 이중독자(dual audience)를 갖는다는 점이다.¹⁾ 그림책이 이중독자를 갖는다는 사실은 어린 유아독자가 갖는 독특한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림책에서의 이중독자의 문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 유아를 위해 부모인 성인 양육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그림책을 선택하여 읽어주는 독서관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림책 작가는 일차 내포독자를 아동으로 상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림책의 선정 및 구매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인 양육자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그림책은 인식론적 지평이 서로 다른 아동과 성인 독자 모두에게 읽는 즐거움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대 그림책에 이르면 이 이중독자의 문제는 더 적극적인 양상을 띤다. 성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B5A02-031810]

1) Nikolajeva, Maria & Scott, Carole, *How Picturebooks Work*, pp. 21-24.

인 독자는 단순히 아동을 대신하여 책을 선택, 구매하는 대행 독자에서 나아가 보다 독자적으로 그림책을 찾아 즐기는 독립 독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이른바 “작가적” 그림책으로 분류되는 현대 그림책은 다양한 이야기 전략을 통해 그림책에서의 성인을 대행 독자에서 독립 독자로 바꿔 놓으며, 기존의 그림책의 위상, 즉 아동을 위한 책으로서의 그림책의 위상을 크게 확장시킨다.

본 논문은 그림책의 독특한 특징인 이중독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림책이 갖는 유연성을 역설과 아이러니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림책의 유연성은 그림책이 태생적으로 갖는 역동적인 과정(process)²⁾이라는 특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능이 서로 다른 글과 그림의 조합에 의해 그림책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 글과 그림의 결합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 지에 따라 그림책의 유연성의 폭과 깊이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이 맺는 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적게는 5가지 유형에서 많게는 9가지 유형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다양하다. 글과 그림의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크게 글과 그림이 동일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칭 관계와, 글과 그림이 각각 서로의 공간을 메워주는 상보적 관계, 글과 그림이 서로를 부연·확장시켜주는 관계, 그리고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모순 및 대위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이 맺는 관계는 글과 그림이 서로 결합하여 서사를 전개해나간다는 점에서, 서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기 다른 읽기 방식을 추동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글과 그림이 서로 동일한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서로의 빈틈(gaps)을 메워주는 그림책의 경우, 독자는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모순된 경우보다 더 수동적인 읽기 태도를 취한다. 다시 말해 글과 그림이 서로 균형 또는 상보관계에 있는 경우, 독자의 상상력은 덜 작동되며, 따라서 보다

2) Lewis, David, *Reading Contemporary Picturebook*, pp. 46-75.

3) Nikolajeva, Maria & Scott, Carole, *Ibid.*, pp. 6-21.

소극적인 읽기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반면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독자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혀 하나의 이야기로 완결 짓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읽기를 시도한다.⁴⁾

따라서 그림책은 펼침면(spread)과 펼침면 사이의 공백이 크거나, 하나의 펼침면에서 글과 그림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더 다양한 읽기를 가능하게 하며 역동성을 더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보면 그림책의 역동성은 결정적인 단일 서사를 담고 있는 전통 그림책에 비해, 비선형성과 불확정성, 애매모호함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에서 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림책은 일반적으로 글이 시간의 선적인 흐름의 지배를 받으며 서사를 담당하는 동안, 그림은 주로 인물에 대한 묘사나 사건을 재현한다. 이때 글이 안정적인 단일 서사를 전달하고 그림이 이를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한다 해도, 그림의 특성상 글을 완전히 반복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림은 다양한 시각적 요소와 각 요소들 사이의 배치 및 결합 양상에 따라서도 다양한 의미를 실어 나를 수 있고, 따라서 글과 그림 사이의 겹은 그림책에서 정도와 유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문제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다룬 책으로 널리 이해되어온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의 『돼지책Piggybook』을 중심으로, 글과 그림 사이의 겹에 따른 그림책의 유연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분석대상을 『돼지책』 한 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편리한 범주화의 틀에 텍스트를 가두지 않고, 예술작품이 그렇듯, 가능한 한 한 권의 그림책이 열려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봄으로써, 그림책의 유연성이 이론상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돼지책』은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단일서사의 간단한 이야기로 해석해온 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림책이 가진 다른 읽기의 가능성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 연구는 그림책 독자라면 누구나 유사하게 구성해볼 수 있는 이야기 너머로,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그림책의 ‘주름’ 속에 담겨 있는지를 역설과 아이러니

4) Nikolajeva, Maria & Scott, Carole, *Ibid.*, p. 17.

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모던 그림책으로서의 『돼지책』이 갖는 위상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역설(paradox)은 초월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ara와 의견을 뜻하는 doxa의 합성어로, 일반적인 견해나 기대에 어긋난다는 뜻과 논리의 초월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역설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수사학자들은 역설을 비유의 한 방식으로 고려했다. 중세를 거쳐 바로크 시대에는 역설을 핵심적인 시적 비유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멘델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흄의 불연속적 세계관 등 논리의 단절이라 이름할 수 있는 당대의 지적 풍토와 맞물리면서 특히 시의 방법과 평론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⁵⁾

역설은 표현방법이자 동시에 인식방법이다. 겉으로는 상호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어떤 진리나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 방법이며, 외적 모순을 통해 내적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인식방법이다. 다시 말해 역설은 세계와 인간의 삶에 감춰진 양면성을 함께 대조시키고 곁에 드러난 모순된 논리를 초월함으로써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런데 역설은 두 세계의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즉 표현형식이나 표현의 참된 의미 사이에 대조가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안에 숨겨진 본래의 의미를 반대로 표현했을 뿐, 표현 자체에는 모순이 없다. 반면 역설은 표현 그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즉 아이러니는 표현된 것과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역설은 모순되는 두 사실의 대립을 통해 새로운 어떤 사실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설은 아이러니에 비해 양자의 모순을 직접 대응시킴으로서 그 모순을 고양시키

5) 김영철, 『현대시론』, 건국대출판부, 236-237쪽.

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역설은 상호모순을 통해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표현방법이자, 일반적인 통념에 충격을 주는 새로운 인식방법이라 할 수 있다.⁶⁾

모순어법을 통해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기존의 합리적 또는 권위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역설의 기본 원리는, 한편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즉 이중결합과, 불확정성, 파편화, 아이러니, 패러디, 패스티슈, 놀이, 우연, 경쟁적 담론, 문학 및 장르, 범주 간 경계 허물기 및 관습의 전복, 상호텍스트성, 비선형성과 애매모호함, 불안정성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된 특성을 들여다보면,⁷⁾ 우연한 놀이처럼 범주 간 경계를 허물고 관습을 깬 채 서로 상반되는 것을 한 자리에 병치시킴으로서, 선형성의 파기는 물론 불안정한 형태의 애매모호함을 통해 논리를 초월하는 역설의 기본 원리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공유하는 포스트모던 그림책 또한 역설이라는 표현 방법이자 인식방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글 텍스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온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역설과 아이러니의 측면에서 분석해봄으로써, 『돼지책』의 새로운 읽기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역설과 아이러니를 통해 그림책이 갖는 유연성을 규명하고, 포스트모던 그림책으로서의 『돼지책』의 위상을 확인해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과 관련하여 아이러니의 문제는 독자적인 연구로서 보다는 주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아이러니는 특정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수사적 표현인 바, 그림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그림책에서 아이러니는 글을 중심으로 논의되거나, 더 많은 경우 글과 그림의 관계를 통해 접근되어 왔다. 즉 『알도 Aldo』와 『내멋대로 공주Princess Smartypants』에서 보듯, 순진해서든, 의

6) 김영철, 같은 책, 240쪽.

7) Sipe, Lawrence R. & Pantaleo, Sylvia(Eds.). *Postmodern Picturebooks*. pp. 1-7.

도적인 것이든 주로 거짓말을 하거나 제한된 관점을 지닌 화자를 통해 구현된다. 『알도』에서처럼, 글 텍스트가 갖는 사전적 정의와 다른 그림을 보여주거나, 어린이와 어른사이의 상충되는 관점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둘째, 그림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역설과 관련된 연구는 베티 골드스톤(Bette Goldstone)의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공간 역설”이 유일한 연구라 할 만큼 드문 실정이다.⁸⁾ 골드스톤은 포스트모던 작가들은 현실에 대한 해석과 표상에 주력하기보다, 공간에 대한 재개념화를 통해 공간의 경계들이 불안정하고 비현실적으로 변화하는 세계를 비취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포스트모던 그림책 작가들은 전경과 중배경, 후경이라는 전통적 공간 차원을 사용하지만, 이에 더해 세 가지 혁신적 차원에서 공간의 개념을 확장시켰다고 말한다. 즉 데이비드 위즈너(David Wiesner)의 『아기 돼지 세 마리The Three Pigs』에서 보듯, 그림책 텍스트 내의 인물과 사물이, 독자의 영역으로 확보되었던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줌Zoom』, 『이게 다일까?Re-Zoom』, 『나의 빨강 책The Red Book』에서처럼 그림의 표면이 투과성을 띠어, 페이지 아래 놓인 대안적 현실의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맥컬레이(David Macaulay)의 『검정과 하양Black & White』과 데이비드 위즈너의 『아기 돼지 세 마리』에서 보여주듯, 글 텍스트의 위치와 기능에 새로운 잠재력을 부여해, 단어들은 페이지 어디든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 인물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또 공간 안에 놓인 소품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공간의 역설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권태로움을 일소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초기의 가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한 시각 이미지 측면에서 역설과 관련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홍보람은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테페이지망 표현을 활용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에서 역설을 초현실주의적 테페이지망 표현방법의 하나로 소개하고, 관련 그림책의 예를 들고 있다. 그는 초현

8) Goldstone, Bette, “The Paradox of Space in Postmodern Picturebooks” in Sipe, Lawrence R. & Pantaleo, Sylvia(Eds.). *Postmodern Picturebooks*. pp. 117-129.

실주의적 데페이즈망 표현방법으로 대상의 고립, 변형, 크기의 변화, 합성, 이중적 이미지, 우연한 만남의 발생, 역설, 개념적 양의성을 들고 있다.⁹⁾ 김수정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역설에 대한 기초연구”에서 역설을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의 특성으로 보고, 이를 시각적 역설과 의미적 역설로 구분하여 시각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는 조형적 착시의 관점에서 시각적 역설을 형태와 구조에 따라, 형태와 반전, 형과 형의 반전, 불가능한 도형, 형의 통합, 형의 보완, 크기의 변화, 위치이동, 물성변화, 결합의 10가지로 정리하고, 의미적 역설은 패러디와 패스티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¹⁰⁾

이 두 연구를 비교해보면, 홍보람은 김수정이 시각적 역설의 한 형태와 구조로 본 내용들을 데페이즈망 표현방법으로 정리하여 역설을 그 중 하나의 표현방법으로 본 반면, 김수정은 역설을 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시론에서 정의하는 역설의 개념에 근거하여 김수정과 같은 관점에서 역설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넷째, 『돼지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김상한(2011)은 대칭성의 논리에 따라 글과 그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물과 배경을 분석하여 피곳씨와 두 아들을, 피곳 부인과 비대칭 관계에 의한 분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림자로 표현되는 무의식과의 대면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대극의 통합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수진(2011)은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꿈꾸는 율리』, 『돼지책』, 『터널』을 글과 그림의 틈새를 면밀히 분석하여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은 역사와 문화, 상상력과 현실, 다양한 매체가 기묘하게 얽혀 있음을 밝히고, 『돼지책』을 성역할에 대한 도전과 소외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보았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브래드포드(Bradford)(1998)와 세라피니(Serafini)(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브래드포드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세 권, 『돼지책』, 『동물원』, 『고릴라』를 대상으로 시각적 이미지에

9) 홍보람, 「데페이즈망 표현을 활용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3.

10) 김수정,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역설에 대한 기초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7권 2호, 2006.

담긴 유희성(playfulness)에 주목하며 그림책에 그려진 아버지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세라피니는 다중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s)를 읽는 세 가지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돼지책』을 예로 들어 분석의 실례를 보여주었다. 그는 다중 양식 텍스트와 같이 다양한 매체에 변화가 일면서, 적절한 시각적 문식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다중 양식 텍스트를 씌어진 그대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의 메타기능(ideational, interpersonal, compositional)은 물론 그것이 배태된 사회·문화, 정치적 맥락과 그것이 전파되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라피니 또한 『돼지책』이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의문시한 작품으로 보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지책』과 관련된 연구는 각각의 연구가 방법론이나 주요 분석틀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주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돼지책』은 글 텍스트가 분명하게 전하는 그대로 한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의 문제를 다룬 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앤서니 브라운이 이렇듯 명백해 보이는 이야기 너머로 어떤 이야기 전략을 통해 성인 독자들의 읽는 즐거움까지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역설과 아이러니가 단순히 표현방식을 넘어 세계 인식의 한 방법인 바, 이를 통해 『돼지책』에 접근해봄으로써, 앤서니 브라운이 『돼지책』에 담고자 했던 표면의 이야기와 이면의 이야기를 밝혀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III. 『돼지책』,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

1. 시각 이미지의 역설

그림책 연구자들은 대부분 앤서니 브라운의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Voices in the Park』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지만, 『돼지책』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¹¹⁾ 『돼지책』 역시 명화를 패러디

하여 자신의 그림책 안에 새겨 넣은,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주된 특징인 경계 허물기와, 패러디 및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와 달리 『돼지책』을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이유는, 『돼지책』의 글 텍스트가 전통적인 서사 방식에 따른 안정적인 단일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어느 것도 진정한 이야기라 단정할 수 없을 이야기를 네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이른바 다중서사를 보여주고 있다면, 『돼지책』은 글을 읽을 줄 아는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 그림책 보다는 전통 그림책에 가까운 것으로 접근해왔다.¹²⁾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돼지책』은 줄곧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읽혀져 온 것이 사실이다. 피곳 씨 집에는 부인과 두 아들, 그리고 피곳 씨가 살고 있는데 두 아들은 학교에 다니고 피곳 씨와 부인은 직장에 다닌다. 집안일은 부인이 도맡아 하며, 피곳 씨와 두 아들은 늘 피곳 부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서둘러 직장과 학교에 간다. 피곳 부인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며, 나머지 가족들과 달리 집에서 좀처럼 쉴 시간이 없다. 나머지 가족들은 빨리 밥을 달라며 채촉하지만 할 뿐 피곳 부인을 도와주는 법이 없다. 피곳 부인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지 않고, 대신 “너희들은 돼지야”라고 적힌 쪽지 한 장이 발견된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돼지로 변한 채 그동안 피곳 부인이 해오던 일을 해야만 하고, 집은 점점

11) 한 권의 그림책을 포스트모던 그림책으로 보느냐 전통 그림책으로 보느냐는 그 자체로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논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나 산문이 독자의 읽기 태도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나름의 의미가 있다. 즉 한 권의 그림책을 전통적인 그림책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포스트모던 그림책으로 접근해 읽어볼 경우, 독자는 보다 유연한 읽기 태도를 견지할 수 있으며 그것이 또 텍스트에 대한 의미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2)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포스트모던 그림책 연구에서, 데이비드 맥컬레이의 『검정과 하양』와 함께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대표적인 작품이지만, 『돼지책』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논의되기보다 오히려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돼지우리처럼 변해간다. 먹을 것이 모두 바닥나 돼지로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곳 부인이 돌아온다. 피곳 부인은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집에 있기로 했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이전과 달리 피곳 부인이 해오던 일을 함께 하며 지내게 된다. 행복을 찾게 된 피곳 부인은 차를 수리하는 것으로, 즉 한 번도 그림책 본문이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이야기는 끝난다.

그런데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동등하게 전체 서사를 구성해나간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보면, 『돼지책』은 이 이야기만큼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니콜라예바가 지적인 대로 성인들이 흔히 읽듯 글 중심으로만 읽는다면, 『돼지책』을 위와 같은 이야기로 읽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림과 함께 보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통해 그림책 전체와 부분을 오가는 반복적 읽기를 하다보면,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돼지책』이 적어도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책 제목과 표지는 파라텍스트의 하나로서 책 전체에 대한 메타텍스트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대체로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책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책에 대한 정보를 주고, 거기서 더 나아가 독자에 대한 정보 또한 담는다.¹³⁾ 제목과 표지가 책 전체와 맺는 관계가 그렇다면, 『돼지책』은 오히려 간단치 않은 이야기일 수 있다.

『돼지책』은 제목을 통해 어떤 책인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제목만 보면 돼지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돼지에 관한 책인지, 돼지가 보는 돼지 소유의 책인지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능성을 갖는다.¹⁴⁾ 독자들은 이 때 자신이 느끼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책의 일반적인 읽기 방식에 따라, 글 텍스트에 언급된 것을 그림에서 찾아보게 된다. 그러나 독자들은 돼지 대신 4명의 인

13) Nikolajeva, Maria & Scott, Carole, *Ibid.*, p. 245.

14) 김수진(2011)은 “돼지책Piggybook이란 단어는 ‘업는다piggyback’는 말의 변형이기도 하고, 돼지라는 동물의 일반적인 특성과 돼지가 등장하는 전래동화의 특성을 차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단어조합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흐려지는 경계와 확장되는 상상력: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영미문학교육』 제15집 2호, 254쪽.

물을 보게 되고, 그것도 한 여성이 가장 뚱뚱한 인물을 포함한 3명의 남자를 업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된다. 독자들은 그림에서 예상했던 것을 찾지 못하게 되자 다시 한 번 제목을 떠올리며 돼지와 어울릴만한 것을 찾아보려 한다. 여자의 등에 업혀있는 뚱뚱한 성인 남자의 별명이 돼지인가 하는 의혹을 품은 채, 앞표지 그림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두터운 사각틀의 색깔을 눈여겨보게 된다. 제목과 표지 그림을 연결짓는 과정에서 예상에 어긋나는 그림을 보게 되어, 인지적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 독자들은,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그림책 작가가 제목에서 핵심단어라 할 수 있는 돼지에 해당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형태 대신 분홍색이라는 피부색으로만 표현했다고 생각하며 책을 읽게 된다.

『돼지책』은 이렇게 표지에서부터 글과 그림이 모두 모순어법에 기초한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우선 제목을 구성하는 ‘돼지’와 ‘책’은 그것들이 표상하는 세계가 매우 대조적이다.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 돼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게으른 동물로서, 특히 책이 표상하는 지적인 측면을 포함한 정신적인 세계와는 대조적인 세계를 표상할 때 즐겨 사용되어 왔다. 이처럼 『돼지책』은 제목에서 서로 대조적인 낱말을 한 자리에 엮어 독자의 호기심을 극대화하며 책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표지 그림 역시 세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이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그려져 그 자체로 역설적 상황을 연출한다. 그러니까 표지에 등장하는 제목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각각 역설적일 뿐만 아니라, 이 글과 그림의 관계 역시 역설적임을 알 수 있다.

역설적 상황은 타이틀 페이지와 현정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이 두 페이지에서 모두 분홍빛 돼지가 등장하는데, 날개달린 채 날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비상(飛上)이라는 행위에 전제되어 있는 ‘가벼움’을 무거운 돼지와 함께 병치시킴으로써, 돼지 혹은 날개 달린 동물에 대한 통상적인 지각이나 견해, 또는 선입관으로부터 일탈을 강조한다.¹⁵⁾

15) 타이틀 페이지와 현정 페이지에 소개되는 이 날개달린 돼지의 비상은, 그림책 본문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피곳 씨를 비롯한 세 명의 남성이 피곳 부인이 해왔던 가사일을 도우며 가족 모두가 행복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의 현실은 돼지가 하늘을 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보면 『돼지책』은 그림책 본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관되게 역설적 상황이 연출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타이틀 페이지와 헌정 페이지에 나오는 돼지는 모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뿐만 아니라, 타이틀 페이지에서 한 마리였던 돼지가 헌정 페이지에 이르면 두 마리로 늘어나면서 날아가는 방향과 높이 또한 점점 오른쪽 상단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독자의 책읽기 방향과 맞물리면서, 상승의 리듬을 연출하며 더한층 강조된다.¹⁶⁾ 따라서 독자들은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나가기 전에 역설적 이미지가 전하는 낯선 상황(depaysment)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한편, 상식을 벗어난 데서 오는 인지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찾으려 한다.¹⁷⁾

그런데 독자는 그림책 본문을 읽기에 앞서 경험했던 인지적 불균형을 정작 『돼지책』 본문의 글 텍스트를 읽을 때는 느끼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 텍스트는 안정적인 단일 서사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 텍스트에 맥락을 제공하는 시각 이미지는 여전히 역설적인 형상을 띠어 글 텍스트가 전하는 이야기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그림책 본문의 첫 페이지에 그려지는 피곳 씨 집을 들 수 있다. 마당에서 있는 피곳 씨와 두 아들 뒤로 보이는 그들의 집은 글 텍스트에 따르면, ‘멋진 집’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이 집은 원근법을 고려하고 보더라도, 인물과의 상대적 크기를 생각해보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집의 상대적 크기보다 더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집의 유리창에서 연출된다. 유리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보면 『돼지책』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자신을 반박하는 포스트모던 문학의 특징을 띤다고 할 수 있다.

16) 그림책에서는 인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동일한 인물이 반복적으로 그려질 수 있어 이 경우 한 마리 돼지의 연속 동작으로도 볼 수 있으나, 반복과 상승에 따른 강조인 것은 분명하다.

17) 이를 독자의 관점이 아닌 작가의 관점을 빌려 보면, 오히려 작가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이 야기하는, 책에 대한 호기심의 유발과 같은 효과 그 이상으로, 그것이 비록 그림책 텍스트라는 허구의 현실일지언정, 상식 밖의 현실이 실제로 존재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돼지책』에 대한 메타텍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돼지책』에도 누구나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 이상의 현실이 존재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이 거울이 아닌 이상,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림은 멀리 있어 집의 내부가 보이지 않는 채로 그려지거나 적어도 실내의 일부여야 옳다. 그런데 이 유리창은 오히려 바깥 풍경을 반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숲의 윤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 역시 나머지 그림 전체를 고려하며 좀 더 자세히 보면, 오히려 집 앞쪽이 아닌 집 뒤편에 있는 숲과 하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점에서 보면 집은 글 텍스트가 말한 대로 멋진 집이 아니라, 실내 공간이라는 깊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공간의 가능성을 얻는다.

둘째, 두 번째 펼침면에 등장하는 아침 식사 장면을 들 수 있다. 그림은 피곳 씨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으며, 두 아들은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입을 크게 벌린 모습으로 그려진다. 글 텍스트는 이 두 아들이 엄마에게 밥을 빨리 달라고 외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은 글 텍스트와 무관하게 그림만 보면, 다른 가능성을 말해준다. 즉 허공에 시선을 던진 채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은 오히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먹을 것을 넣어주기만을 기다리는 나이 어린 아이들의 표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¹⁸⁾ 특히 식탁 위에 놓여있는 뚜껑이 열린 상자의 그림을 보면, 그것이 엄마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씨리얼 상자임을 알 수 있다. 또 피곳 씨 맞은 편 자리에 놓인 대접에는 이 세 인물 앞에 놓인 대접과 달리 우유가 담겨있어, 이와 비교해볼 때도 글 텍스트가 말한 이들의 외침이 그다지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로 피곳 씨가 들고 있는 신문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읽고 있는 신문에 바로 자신과 두 아들을 포함한 세 인물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의 사진은, 글 텍스트가 말한 대로, 이 세 인물이 피곳 부인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을 실어, 통상적으로 신문에 실린 기사는 적어도 독자가 신문을 보는 행위 이전에 일어난 사실을 신한다는 논리와는 어긋나는 역설을 보여준다. 또 정작 이들이 신문 기사에 실

18) 이들이 입을 벌린 모양은, 아를 소리낼 때의 입모양과 흡사하다. 따라서 이들이 글 텍스트에서 언급하는 내용의 일부, 즉 엄마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면, 이들이 소리치는 장면으로보다는 입에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린 만한 사건의 인물인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한다. 따라서 정작 그림에서 피곳 씨가 손에 들고 있는 신문은 피곳 씨가 읽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림책 화자가 독자에게 보기를 권하는 신문으로 볼 수 있다.¹⁹⁾

따라서 이 신문 그림은 그 자체로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한편, 그림책 현실이라는 허구의 공간과 그것을 바라보는 독자의 공간이 서로 만나는 공간의 역설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⁰⁾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역설을 통해 앤서니 브라운은 새로운 이야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곳 씨 집에 걸린 것으로 그려지는 두 개의 액자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앤서니 브라운은 『돼지책』에 두 화가의 그림, 즉 네덜란드 화가, 프란스 할스(Frans Hals)의 『웃고 있는 기사Laughing Cavalier』와 영국의 화가, 토마스 게인스보로우(Thomas Gainsborough)의 『앤드류 씨 부부Mr. and Mrs. Andrews』를 싣는다. 『웃고 있는 기사』는 옷소매에 새겨진 타오르는 햇불과 화살, 꿀벌, 연인의 매듭 등이 네덜란드 문화에서는 사랑을 상징하고 있어 약혼 초상화로 이해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그림은, 피곳 씨와 두 아들을 피곳 부인과 별도의 장면에서 분리하여 신고,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세 남자와 달리 피곳 부인이 집에서 하는 일을 세세하게 그려 보여준 다음 장면에서 등장한다. 즉 독자가 몸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그림, 『웃는 기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돌아온 세 남자가 피곳 부인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장면에서, 그림책 속 허구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집안일의 노고를 오로지 피곳 부인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음 등장하여, 흔히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이나 음악, 그림이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상황은 초상화가

19) 드레쌍(Dresang)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화가가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을 들고 있다. Dresang, Eliza T., "Radical Change Theory, Postmodernism, and Contemporary Picturebooks", in Sipe, Lawrence R. & Pantaleo, Sylvia(Eds.). *Postmodern Picturebooks*. p. 43.

20) 신문 그림을 통해 구현되는 전통적인 시간과 공간 관계의 전복 또한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Dresang, Eliza T., *op. cit.*

상기시키는 사랑에 토대를 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장면으로서, 오히려 이 가정에 걸쳐져 있는 사실, 즉 상호 배려와 존중에 토대를 둔 사랑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책장을 넘기자마자 독자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왼쪽 페이지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정면으로 그려진 나머지 세 인물과 그림 액자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상호비교하며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피곳 씨가 앉아 있는 일인용 소파 뒤에 왼쪽으로 약간 비킨 지점 위에 걸려 있는데, 이 일인용 소파는 그림책 전체에서 세 번에 걸쳐 그려짐으로써, 세 장면 사이의 차이를 통해 이 액자 그림이 전체 장면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첫 장면에서는 이 그림 액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그림액자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피곳 씨 집에 걸려 있던 그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새롭게 등장하여 피곳 씨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는 다른 이야기 차원에 위치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피곳 씨 집에 걸려있던 그림으로서, 인물의 예술적 취향을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곳 씨와 두 아들, 그리고 피곳 부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다른 이야기 층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그림들은 작가가 등장인물을 따돌리며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특히 이 그림이 다시 한 번 등장하는 장면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피곳 씨를 비롯한 세 인물이 돼지처럼 바닥에 엎드려 음식 부스러기를 찾는 장면에서, 다시 한 번 변형된 형태로 등장한다. 세 번째 소파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 그림은 완전히 돼지의 초상화로 바뀐다. 따라서 앞서 등장한 그림을 변형된 형태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앞의 그림은 사랑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가족들에게 준 경고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림책의 부분이 그림책 전체와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따라 보다 풍요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그림이 반복 제시되면서 겪는 패러디의 변형은, 사건의 국면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어, 그림책 전체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할

수 있다.

『돼지책』에 등장하는 또 다른 그림은 『앤드류 씨 부부』로, 피곳 부인이 집을 떠난 사실이 나머지 세 인물에게 알려지기 직전 장면에서 소개된다. 이 그림은 원작 대신 패러디의 형태로 한 번 소개된다. 앤드류 씨의 얼굴은 돼지의 형상으로 바뀌며, 앤드류 부인의 자리는 윤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도려낸 듯 희게 비어있는 채로 그려져 피곳 부인의 부채를 예견한다.

『돼지책』에 등장하는 이 두 그림의 예는 성인독자를 겨냥한 일종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놀이의 성격을 띠지만,²¹⁾ 원작의 충실한 재현이든 패러디의 변형이든, 그림책이 그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 또는 예견해주거나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림책의 공간을 한층 다층적인 형태로 바꾸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 이미지의 역설은 실제 그림책 인물들이 겪는 변화를 통해 정점에 달한다. 피곳 씨와 두 아들은, 피곳 부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집에서 발견된 하나의 쪽지가 명시한 대로 돼지의 형상으로 바뀐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돼지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배고픔의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앤서니 브라운은 『돼지책』에서 돼지와 인간의 이중결합이라는 역설적인 이미지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는 진정한 인간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앤서니 브라운은 『돼지책』에 등장하는 시각 이미지의 역설, 다시 말해 주목성이 뛰어난 시각 이미지에 역설의 비유를 덧입힘으로써, 누구나 일상처럼 문제없이 바라 본 대상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분명한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온 기존의 『돼지책』 읽기 방식에도 유효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1) Beckett, Sandra, L., "Artistic allusions in picturebooks", in Colomer, Teresa, Kümmerling-Meibauer, Bettina & Silva-Diaz, Cecilia(Eds.), *New Directions in Picturebook Research*, Routledge, 2010. pp. 83-98.

2. 글 텍스트의 아이러니

이종결합의 역설이 표면적으로는 자가당착적인 진술을 통해 통상적인 지각방식이나 상식을 파괴함으로써 진리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아이러니는 말한 것과 의미하는 것 사이의 긴장과 대조, 갈등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아이러니는 본래의 의도를 숨기고 반대되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표현된 그 자체라는 표면에 가려진 이번의 의도를 강조하는 것인 바, 이를 통해 『돼지책』의 또 다른 면모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책에서 아이러니는 주로 글이 그림과 맺는 관계를 통해 논의되어 왔다. 즉 존 버닝햄의 『알도』에서와 같이, 흔히 글 텍스트가 언급한 자의(字意)와 반대되는 사실을 그림이 재현할 때, 글과 그림이 아이러니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에 적용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읽어온 것과 다른 방식의 『돼지책』 읽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첫째, 『돼지책』의 첫 장면에서 강조하는 멋진 집과 멋진 차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글 텍스트는 “피곳 씨는 두 아들인 사이먼, 패트릭과 멋진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멋진 정원에다, 멋진 차고 안에는 멋진 차도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피곳 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1)²²⁾라고 되어 있다. 이 글 텍스트를 보면, 세 명의 남자와 피곳 부인은 문장을 달리하여 소개된다. 특히 피곳 부인은 다른 두 아들은 물론, 멋진 집과 멋진 정원, 멋진 차고, 멋진 차에 이어 가장 ‘뒤’에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멋진’이라는 수식어는 집과 정원, 차고, 차 앞에 각각 붙어 하나의 리듬을 이루다가 피곳 부인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빠져 피곳 부인의 상대적 위상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그림은 이런 인물관계를 충실히 재현한다. 피곳 씨와 두 아들만이 그림에 그려질 뿐, 피곳 부인은 ‘집안에 있다’는 이유로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그림에서의 피곳 부인의 부재는 글 텍스트에 대한 정당한 반영처럼 보이나, 이 세 인물이 하나 같이 성장(盛裝)을 한 채 미소 띤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보면, 여러 번 반복되다 정작 피곳 부인에 이르러 빠진 ‘멋진’이라는 수식어 또한 단순한 결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22) 괄호안의 숫자 1은 『돼지책』의 첫 번째 펼침면을 뜻함.

인물들의 그림은 한편으로 보면 가족사진을 연상케 하는데, 글 텍스트는 피곳 부인이, 이들 앞에서 이들의 모습을 찍거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에게서 피곳 부인이 갖는 의미를 시사해준다. 특히 이들은 엄마가 부재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팔장을 낀 채 수수방관’하듯 그려져 다 음에 이어질 이야기에서 인물들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²³⁾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이러니는 인물들과 달리 강조된 멋진 정원과 멋진 차고, 멋진 차를 비롯한 멋진 집에 대한 것에서 보다 분명하게 발견된다. 그림을 보면, 멋진 집과 멋진 정원, 멋진 차고, 멋진 차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다. 정원은 그 안에 있음직한 개체들은 생략된 채 전면(全面)이 밝은 초록색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차고는 물론, 들어 올려진 차고의 문을 통해 보이는 차 역시 붉은 색이라는 것밖에 멋진 것임을 확인할 길이 없다. 집은 앞서 언급한 대로, 원근법을 고려하고 보더라도 피곳 씨보다 작게 그려지며, 두 가지 유형의 동일한 형태의 창문을 제외하고는 특기할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독자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멋진 집과 정원, 차고, 차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멋진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상상을 해보게 된다.

글 텍스트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멋진 차와 멋진 집에 대한 독자의 기대는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즉 멋진 집은 피곳 부인이 있다던 실내에 집중되어 그려지면서, 실제 돼지우리과 같은 것으로 소개되며, 멋진 차 역시 수리가 필요한 것임이 밝혀진다.²⁴⁾ 이로써 멋진 것에 대한 독자의 기대는 글 텍스트가 언급한 사실에 대한 의혹으로 역전된다.

둘째, 그림책에서 멋진 것에 이어 강조되는 중요한 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책의 두 번째 펼침면의 글 텍스트는 ““여보, 빨리 밤 쥐.” 피곳 씨는 아침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회사로 행하니 가 버렸습니

23)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급하게 되겠지만, 앤서니 브라운은 이들의 그림을 가족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려, 상호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인간 상호 관계는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이러한 표현방식을 빌어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4) “엄마는 차를 수리했습니다.”(15)

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사이먼과 패트릭도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학교로 뺄하니 가버렸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글 텍스트만 보면, 피곳 씨의 회사 일이나, 두 아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 피곳 부인이 하는 일에 비해 중요하다. 그런데 그림책은 정작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으며, 집안에서 일어나는 극히 일상적인 일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책 텍스트는 피곳 부인의 부재(不在)를 기점으로 둘로 완전히 포개지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피곳 부인의 가출 이후, 그 이전의 인물들의 관계가 역전되면서, 멋진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즉 그림책 전체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화자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중요한 일은 정작 피곳 씨와 두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피곳 부인이 담당해왔던 집안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지책』은 한편으로는, 앤서니 브라운 자신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도덕적인 책임에 틀림없다.²⁵⁾ 즉 인간 존재와 가족 관계 및 삶과 관련된 문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첫 번째 그림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상호 존중과 배려와 같은 진정한 영혼의 교감이 없다면, 그것은 존재의 부정에 다름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으로 읽힐 수 있다. 또 의식주와 같은 일상의 기본적인 욕구만큼 인간 삶에서 중요한 것도 없으며, 일상적인 것들 역시 상호배려와 존중의 인간관계가 바탕이 될 때, 충분히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읽기 방식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특히 『돼지책』의 마지막 장면은 위의 교훈적 읽기 방식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글 텍스트가 앞서 언급한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언어가 갖는 재현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돼지책』 또한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멋진 차로 언급된 차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작 수리가 필요한 차로 소

25) 앤서니 브라운, 조 브라운, 홍연미 옮김. 『앤서니 브라운 나의 상상 미술관』, 웅진주니어, 2011, 108쪽.

개되는 것처럼,²⁶⁾ “정말로 재미있었다”는 요리와²⁷⁾ “행복했다”는 엄마 역시²⁸⁾, 열린 결말에 따라, 오히려 반어적으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려진 차의 번호판은 123 PIGS를 순서만 뒤바꾼 ‘SGIP 321’의 형태를 띠므로써, 『돼지책』이 그야말로 언제든 다른 가능성을 갖는 ‘말놀이’에 지나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돼지책』은 “멋진” 것과 “중요한” 것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그리고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정체불명의 한 마디가 인물들의 삶은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어는 현실을 충실히 재현하기보다 오히려 현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한 바와 같이,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남녀 성역할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언어의 현실 재현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포스트모던 그림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고히 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그림책이 성인문학을 비롯한 주류 문학과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중 독자를 갖는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림책은 아동 독자는 물론 성인까지도 읽는 즐거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림책은 상대적으로 인지적 한계를 지닌 어린 유아를 위한 책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비교적 분명한 단일 서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온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중심으로 그림책이 가진 유연성을 점검해보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표현방법이자 동시에 세계 인식

26) 차 수리를 남성의 전유물로 보아, 이를 피곳 부인이 고정된 성역할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읽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돼지책』을 읽기도 한다.

27) “그리고 피곳 씨와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요리는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14)

28) “엄마도 행복했습니다.”(14)

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역설과 아이러니를 중심으로 『돼지책』을 읽어봄으로써, 『돼지책』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분석결과, 앤서니 브라운은 『돼지책』에서 글 텍스트를 통해서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도, 그림책 제목과 표지 그림을 비롯한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역설적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독자들을 인지적 불균형의 상태에 놓이게 하여, 보다 면밀하고 비판적인 읽기를 추동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허구의 그림책 현실에 삽입되는 실재하는 두 그림의 예는 원작의 충실한 재현이든 변형된 패러디든, 성인 독자를 겨냥한 일종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놀이의 성격을 띠지만, 그림책이 그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 또는 예견해주거나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림책의 공간을 더 한층 다층적인 형태로 바꾸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글 텍스트에 맥락으로 작용하는 시각 이미지는 역설적 형상을 통해 글 텍스트가 전달하는 단일 서사에 균열을 야기하며 다양한 이야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한편, 이야기 자체에 대한 해석을 담은 메타텍스트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각 이미지는 글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와 어긋나는 사실을 그려 글 텍스트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돼지책』이 성역할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와 소외 및 진정한 행복의 문제를 다룬 이야기에서 나아가 언어가 갖는 현실 재현의 한계를 통해 오히려 그와 같은 교훈적인 읽기 방식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역설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보면 『돼지책』은 표면적으로는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남녀 성역할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언어가 현실에 대해 갖는 재현의 한계나 현실의 구성 가능성을 제기하여 다양한 이야기가 서로를 반박하며 경쟁하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고히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징이 어린 유아와 성인 모두에게 읽는 즐거움을 충족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상한, 「그림동화에서 글과 그림의 작용과 대칭성의 논리 -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35호, 2011.
- 김수정, 「시각커뮤니케이션에서의 역설에 대한 기초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7권 2호, 2006.
- 김영철, 『현대시론』, 건국대학교출판부, 2012.
-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13.
- 김창완, 「역설의 언어(1)」, 『한국어문학』 제23집, 1998.
- 남정희, 「역설과 반어」, 『반교어문연구』 제11집, 2000.
- 앤서니 브라운, 조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나의 상상 미술관』, 홍연미 옮김, 웅진주니어, 2011.
- 이성엽, 『그림책, 해석의 공간』, 마루벌, 2014.
- 현은자 외, 『그림책의 이해 I』, 사계절, 2005.
- 홍보람, 「테페이즈망 표현을 활용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 그림책을 중심으로 -」, 인천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3.
- BETTINA, Kümmerling-Meibauer(Ed.), *Picturebook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4.
- BRADFORD, Clare, “Playing with Father: Anthony Browne’s Picture Books and the Masculine”,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Vol. 29, No. 2., 1998.
- EUNJA, Yun. *Postmodern Interrog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nd Possibilities in Literacy Education by means of Postmodern Picturebooks*, Thesi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7.
- LEWIS, David, *Reading Contemporary Picturebooks*, New York: RoutledgeFalmer, 2001.
- SERAFINI, Frank, “Reading Multimodal Texts: Perceptual, Structural and Ideological Perspectives”,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Vol. 41, 2010.
- SIPE, Lawrence, R. & PANTALEO, Sylvia(Eds.), *Postmodern Picturebook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8.
- TERESA, Colomer, BETTINA, Kümmerling-Meibauer, & CECILIA Silva-Diaz (Eds.), *New Directions in Picturebook Research*,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0.

❖ ABSTRACT

Paradox and Irony in Postmodern Picturebook
- With Focus on *Piggybook* by Anthony Browne

Ra, Sunhee

This study has examined, first of all, one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picturebook, so-called dual audience. To be more exact, this paper aimed at exploring the flexibility of picturebooks that allows both of children and adult reader to enjoy them. For this, we analysed *Piggybook* by Anthony Browne that so far has been read as a traditional picturebook with a single distinctive narrative rather than as a postmodern picturebook with multiple narratives, centering on paradox and iron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Piggybook* has the potential of multiple readings and meanings for a variety of audiences. Above all, this picturebook raises not only the question about the gender roles but also the one about representation of reality through the language.

Key Words

역설, 아이러니, 포스트모던 그림책, 『돼지책』, 이중독자, 모순어법
paradox, irony, postmodern picturebook, *Piggybook*, dual audience, oxymoron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